



# 발전하는 남미 포장 산업 동향

## Current Status of Packaging Industry in South American Countries

住本 充弘 / 패키징컨설턴트 기술사

### 1. 서론

푸른 하늘이지만 약간 구름이 낮은 느낌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 남미의 포장개선의 제 일보를 내딛었다.

일본에서 가장 먼 지역인 남미에서 2005년 2월, 사사키 씨(옛 설인유업 근무) 둘이서 포장 컨설턴트 활동을 시작했는데 JETRO에 의한 남미 식품산업고도화 프로그램, 남미기업의 상품의 대일수출 촉진 및 세계에 널리 수출할 수 있도록 포장개선을 지도하는 사업이 지금까지도 남미기업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시간은 걸리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 풍토에 맞는 패키지로 상품을 수출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패키지는 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낸다.

그 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패키지는 그 나라대로의 배경, 근거가 있으며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에 상품을 제공할 때는 공급처의 사정을 고려하는 패키지가 필요하므로 남미 5개국의 포장현황과 급후

일본의 역할에 관하여 다음의 주된 포인트를 서술해 본다.

### 1. 아르헨티나

국토면적 세계 8위, 남북 3,800km 남미의 파리아이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플라타천을 따라 펼쳐지는 광대한 도시로서 또한 아르헨티나 탱고의 발상지이기도 한다.

아열대, 온대, 건조, 한랭기후를 동시에 가지며 대초원 팜파에서는 밀 등의 곡물이나 소고기 등 축산물이 풍부하고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밀, 옥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의 과일, 와인이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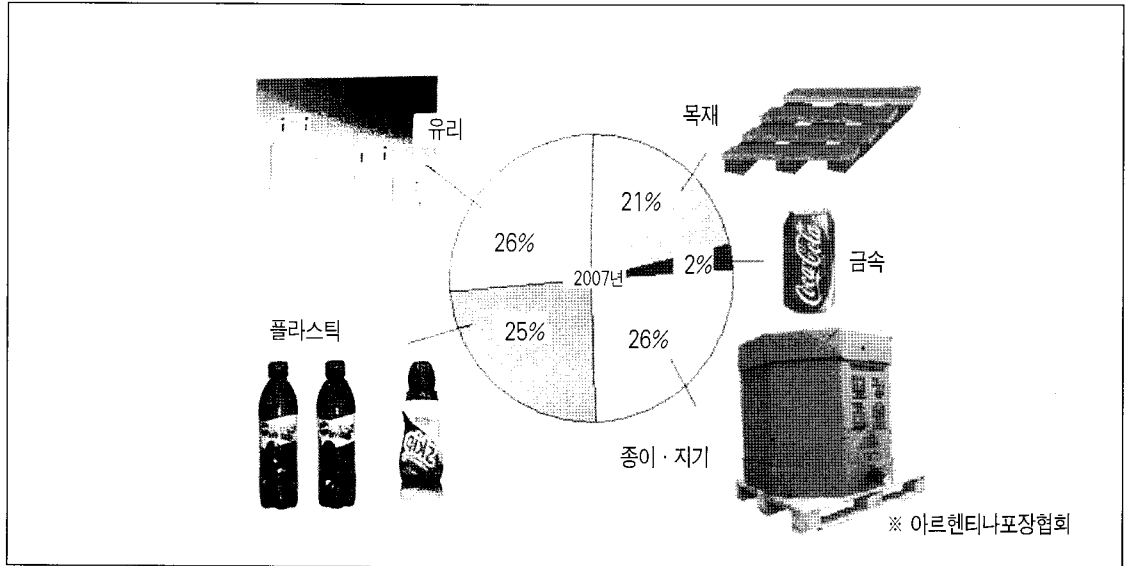
이 나라의 포장산업은 [그림 1]에 나타내는 소재의 비율이며 우리가 많은 것은 와인산업과도 일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리병 공장에서는 와인용을 많이 제조하고 있으며 카레트의 사용은 수출 관개로 적다고 하는 것도 수궁이 간다.

목재, 종이류가 많은 것은 산물의 수출, 수출에



[그림 1] 아르헨티나 포장자재 출하내역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림 1]을 보면 이 나라의 산업구조를 엿볼 수 있다.

농산물이 많고 식용유는 대두유, 해바라기 기름 등을 PET병에 충전하고 있는데 국도가 넓어서 회사 내에서 PET병이나 캡을 제조하고 있다.

유럽의 유명한 성형기를 가지고 있고, 원재료 PET레진은 한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PET병의 기획설계, 기계 등 기술면은 유럽의 존형인 것 같으며 캡의 누수, 핸들링하기 쉬움 등도 개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부 수입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래픽 디자인 데이터를 송부하여 현지에서 라벨인쇄하고 있다.

남미 각국은 수송거리가 길어서 수출국의 수송사정이 나쁘다는 등 수출에 대한 문제도 많아 JICA, JPI에서는 메르코수르(남미남주 공동시장, 남미국가들의 관세동맹 : Mercosur, Mercosul)의 수송환경조사 포장사

험 평가기준치(잠정판) 책정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트럭은 도중 타이어 공기가 빠져도 정비소가 없고 또 멀기 때문에 공기 주입장치를 구비해야 하는 것도 특성이다.

굿디자인 컨테스트로 개최하여 세계 각국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장소재 구입이 어려워, 어렵게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종류의 포장소재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패키지 기능성도 개선되어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남미 측에서 보면 일본은 언제, 어디서든 뭐든지 갖추고 있는 포장재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사진 2~6) : 2007 the annual prizes "Estrellas del sur" for the best packages에서).

그래픽디자인 등은 외주, 일본처럼 포장기획, 개별부문을 조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은 없으며

[사진 1] PET병(식용유)



[사진 2] 변형카톤



담당자베이스이다.

금후 포장품을 글로벌에 서플라이하기 위해서는 전략입안, 실시하는 포장부문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패키지 없이는 상품을 유통할 수 없다. 코스트 중시가 강하지만 패키지의 토탈 코스트 개념을 도입하면 좀더 좋은 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포장 카톤은 자사인쇄의 과자 메이커도 있으며 수성 인쇄도 하고 있다.

일본으로 과자 수출도 검토 중이지만 포장재료 면에서 문제가 있는 듯 보이며 포장기계는 일본의 (주)이시다, 덴찌기계(주) 등의 설비를 갖고 있고 사용편리성, 정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 7].

유제품은 많은 치즈가 판매되고 있으며 포장형태는 일본과 거의 비슷하지만 사양은 다르다. 우유는 테트라팩이 남미 각국에서 채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컵의 성형기술이나 충전기술에는 적절한 수지 구입의 곤란한 문제도 있다.

고기와 치즈 등 유제품은 압도적으로 많아서 패키지의 보고라 할 수 있는데 수출용으로는 일본의 선도유지, 보존기술이 유용할 듯하다([사진 8, 9-1, 9-2]).

큰 기업들은 ISO, HACCP 등을 토대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포장 개선점은 기본 개념이 일본과는 많이 다르며 기준치를 정하여 그 범위이면 비록 누출이 되어도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다.

그것도 하나의 개념이지만 개선가능하다면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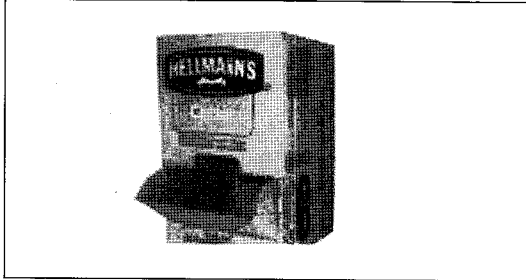
누출은 그 상품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 상품에 주는 데미지도 크다. 포장기식 대응책 등에서 제약이 있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인 것 처럼 느껴졌다.

## 2. 파라과이[사진 10]

일본보다 약간 큰 면적, 남미 대륙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이열대 기후의 나라이며 마테차의 포장, 수출용 건조 농산물의 포장 등 보존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포장기술, 포장재료에서의 문제



[사진 3] 앞면 개봉 카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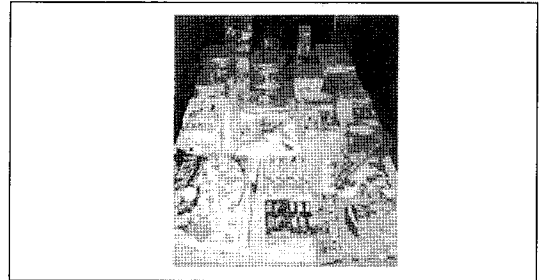
[사진 6] 구상 PET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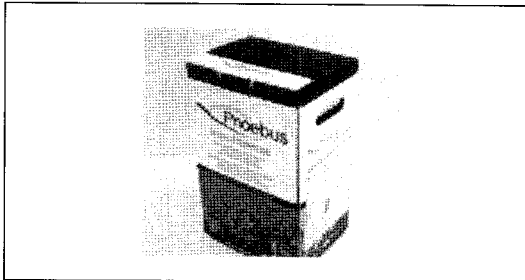
[사진 4] 연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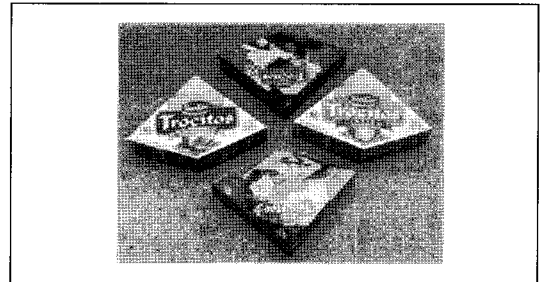
[사진 7] 과자류



[사진 5] BIB



[사진 8] 치즈 카톤



가 많다.

동물용 약을 제조하는 메이커에서는 유리병 충전품의 외장카톤의 인쇄품질관리도 엄격하고, 옵션 인쇄의 색관리 등 인쇄물의 수배, 입수, 관리에 노력하고 있었다.

패키지의 대부분은 수입이지만, 포장상품의 수출은 패키지 품질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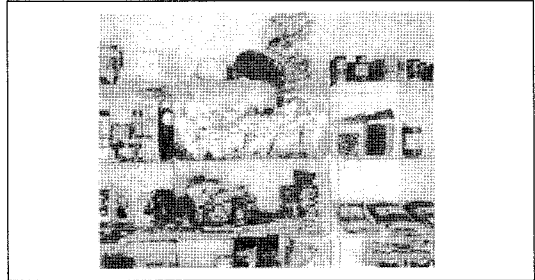
일본인이 경영하는 기업에서는 농산물만 그 가공물을 판매하고 낙화생 등 농산물 일부를 일본에도 수출, 스낵제품은 산화방지 면에서 충전법, 차단성 포장재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야채, 과일의 물류포장은 목상자이지만 적절한 형태나 입상 방법에 의해 유통로스는 질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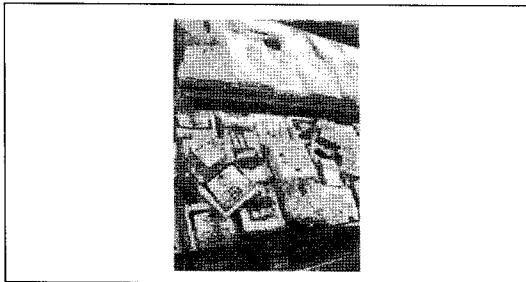
[사진 9-1] 각종 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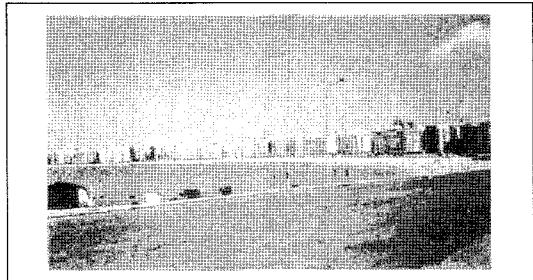
[사진10] 일본계 기업 상품



[사진 9-2] 꼬치 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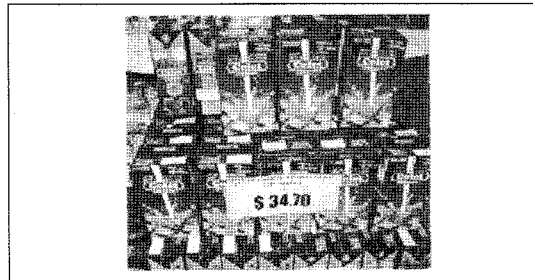


[사진11] 몬테비데오 해안



하다고 보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약간 거칠은 적재이다. 파라과이 뿐만 아니라 세계 청과물 포장 담당자는 한번 시카고의 청과물 도매시장을 견학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진12] 인기 초콜릿 음료(테트라팩)



### 3. 우루과이(사진 11, 12)

대서양에 있는 초원의 나라로서 목축업이 주체이다.

수도 몬테비데오는 라플라타 하구에 인접하여 유럽의 리조트 관광지와 같은 깨끗한 도시이다.

쌀농사가 풍부하여 자국에서의 소비는 적지만 인근 국가나 중동 등에 수출하여 큰 수출산업으로 되어 있다.

정미라인에서는 일본의 (주)사타케의 기계가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포장은 PE나 종이포대가 주체이지만 카톤에 직접 충전하는 상품도 있으며 상부를 개조하여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안했다.

일본인과는 쌀의 먹는 방법이 다르지만 정미품 등 수출이외에 가공품 수출도 검토 중이어서 패키지가 가지는 힘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한다.



[표 1] 일본으로 계속 수출 추이

연도	천톤
1989	78
∴	∴
2003	185
2004	326
2005	405
2006	323
2007	332

[표 2] 일본으로 계속 수출국(2007년)

국가	점유율
브라질	46.50%
중국	28.80%
태국	20.50%
미국	3.30%
기타	0.90%
합계	100.0%

[표 3] 고기 형태

컷팅 육	98.00%
노컷팅 육	1.90%
가공	0.10%

유제품 메이커는 분말우유의 충전에서 종지와 중포대의 하부 오픈에 고심하고 있다. 디저트용 플라스틱 성형물의 리드재의 이지 오픈 등에 문제가 있지만, 재료 구입이 일본과 같지 않아서 고심하고 있다.

와인도 생산되고 있지만, 규모적으로는 작은 듯하다.

우루과이, 일본상공회의소(회장 라울 파라시오스)도 있어서 일본과의 거래에 열심이다.

[표 4] 포장재료 내역

종류	%	billion
플라스틱 1.96% up	36.4	6.55
판지 0.58% up	29.6	5.33
종이	7	1.26
금속 5.20% up	17	3.06
유리	4.9	0.88
원단	2.9	0.52
나무	2.3	0.41
합계	100.1	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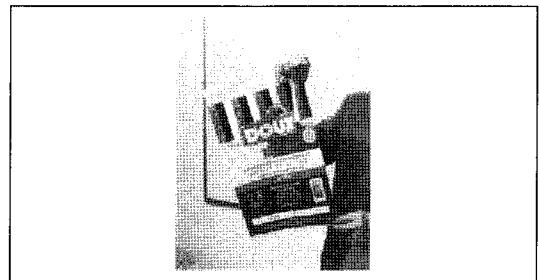
## 4. 브라질

2008년은 브라질 일본 이민 백주년 기념해이다.

1908년 6월18일 6000톤의 배는 일본인 791명을 싣고 브라질 항구 산토스에 입항하였으며 상파울로의 이민기념관은 당시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바이오메탄올, 바이오폴리머 제조 등이 화제를 부르고 있지만, 많은 자원 혜택을 받아 대두, 커피 등 농산물 이외에 닭고기가 일본에 많이 수출되고 있다.

[사진13] 계속 수출용 PE봉투



[표 5] 포장재료 수출입 내역

2007년 포장재료 수출		2007년 포장재료 수입	
종이제품	18.47	종이제품	13.06
목제품	7.37	목제품	0
플라스틱 제품	27.51	플라스틱 제품	63.1
유리제품	11.66	유리제품	6.1
금속제품	34.99	금속제품	17.7
합계	100	합계	99.96
포재수출		단위	
2006	376.7	미국달러	
2007	479.3	미국달러	전년비 1.27배
포재수입			신장율
2006	291.6	미국달러	31.31%
2007	368.5	미국달러	26.35%

닭고기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현지  
의 사람들도 일본 시장을 연구하여 일본에 맞는  
상품 개발 노력을 거듭하여 오늘날 성공으로 되  
었다.

계육생산은 1020만톤/2007, 수출 330만톤  
(50억불 이상), 38kg/1인/1년의 소비량으로 대  
단히 큰 산업이나 그 포장은 shelf Life 연장이 중  
요 과제의 하나이다.

포장산업은 브라질 포장협회(ABRE) 제공 자  
료에서 2007년 2.1% up, 식품이 2.51%, 의약  
품 2% 신장, 금속은 알루미늄 캔의 신장으로  
5.2% up, 2008년 GNP 4.5% 상승예상, 포장산  
업 2.5%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표 4].

전술한 아르헨티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같은 남  
미라도 그 나라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다.

포장재료의 수출, 수입도 활발, 수출은 약 US  
479million 수입은 US 363million이다[표 5].

브라질의 패키지 역사책이 이번에 간행되었다  
[사진 14].

훌륭한 내용으로 세계의 발전된 패키지를 받아  
들이는 것도 빠르다.

또 남미 각국 공통점으로서 그래픽 디자인감각  
도 뛰어나다[사진 15~18].

포장재의 제조 로트는 약간 커서 일본의 최저  
로트 단위로는 좀 대응하기 어려워보이는 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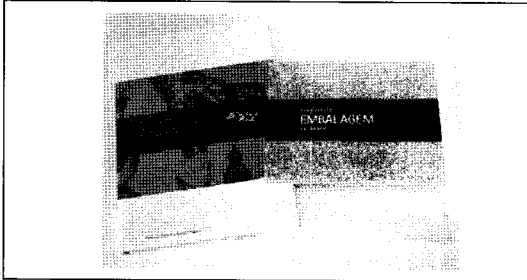
## 5. 칠레

적도 부근에서 남극 가까이 까지 남북  
4329km, 동시 평균 175km의 가늘고 긴 나라  
이다.

구리 등 광물 자원이 많고 경제성장율은 높다.  
안데스산맥을 따라 가늘고 긴 나라이고 아르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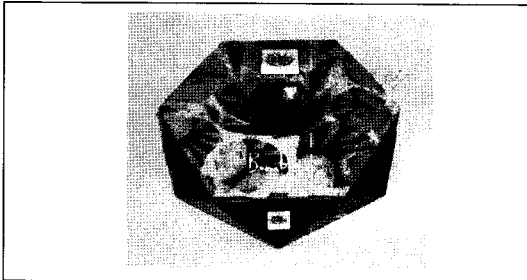
[사진14] 브라질 패키지 역사(책케이스 PP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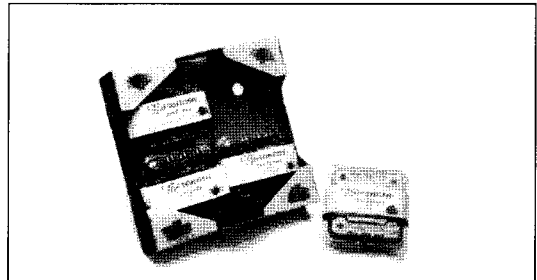
[사진17] 카톤(pam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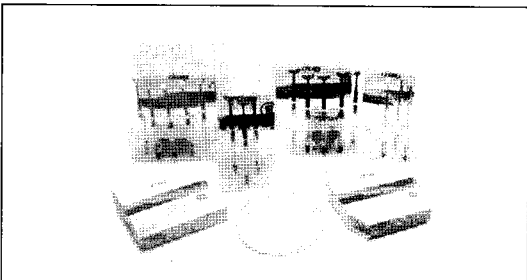
[사진15] 기프트 초콜릿(아마존강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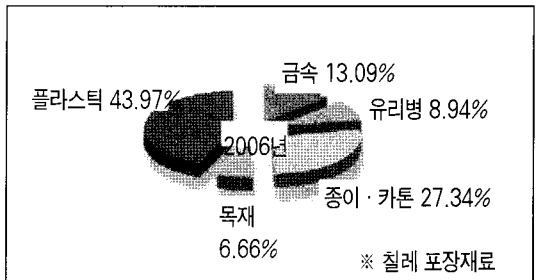
[사진18] 골판지와 과일트레이



[사진16] 각종 의약품 포장



[그림 2] 포장재료 내역



티나에서도 해발 3000m 이상의 산을 넘어 상품이 수송되고 있지만 겨울에는 교통이 두절된다. 현재 남쪽으로 열지 않는 안데스 도로를 계획하고 있어서 아르헨티나의 자원이 태평양에서 아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포장산업은 플라스틱이 의외로 많은데 수출용 가공품 포장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림 2).

양식이 많아서 일본기업도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연어, 광어, 전복 등의 수출에 열심이다.

광어는 진공포장으로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하며 연어도 가공품 개발에 의욕적이며 연어 한마리의 포장은 ONY/PE로 대만에서 수입하며 대만은 인적, 자금적으로 상당히 가깝다.

연어의 큰 파우치용으로 일본 제대기를 설치하고 있는 컨버터도 있어서 포장기술면에서 협력할



[사진 19] 와인(금속 캡으로 변경, 스파이럴 라벨)



[사진 21] 올리브(유리병) 광대한 올리브원 개척



[사진 20] 서예의식 T자(종이 및 필름 라벨)



[사진 22] 5kg 다층 차단 봉지(토마토 퓨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유럽의 Corus 라미네이트 캔도 연어용으로 채용 하는 등 포장에 적극적이며 일본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 많고 대일 수출액도 크다.

농산, 축산물의 원료 수출이 많았지만 금후 가공품 수출, 칠레상품의 브랜드화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다.

와인도 종래의 코르크에서 플라스틱 코르크 알루미늄 스크류캡도 출현, 개봉, 재밀봉성을 고려,

병의 스파이럴상 라벨에 <new screw cap, easy-to-open, assures good seal, keep flavor> 등을 PR하고 있다[사진 19].

수출을 의식해서 일본의 서예를 닮은 듯한 그래픽디자인도 제작[사진 20]. 올리브 재배도 주력[사진 21]하여 유럽컨테스트에서 상을 받았다.

칠레 식품기업협회(Chilealimentos), 프로칠레(칠레수출촉진국 : PROCHILE), 칠레포장기



[사진 23] 레토르트 농축스프



[사진 24] Tetra Recart(금속캔에서 변경)



[사진 25] 스파우트 부착한 스탠드업 파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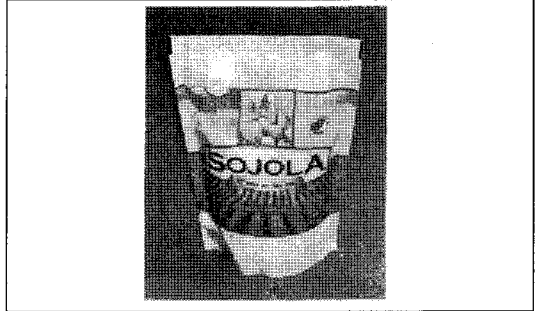


술센터(CENEM), 칠레계육협회 등을 주체로 수출 및 포장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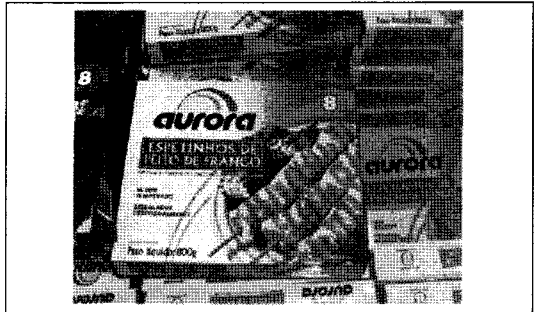
토마토 가공품은 이탈리아의 무균 충전포장시스템이 가동, 드립캔 사이즈로 충전, 수출되고 있다. HOT 충전은 5kg 사이즈(Cryovac제품 : EVOH 두 개층을 포함 8층 차단품)와 스탠딩 파우치물이 제조된다.

텔몬트공장에서는 일본용 말린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과일 선별 라인도 훌륭한 시스템이 가

[사진 26] 표면에 스파우트 부착 스탠드업 파우치



[사진 27] 고치용 냉동육



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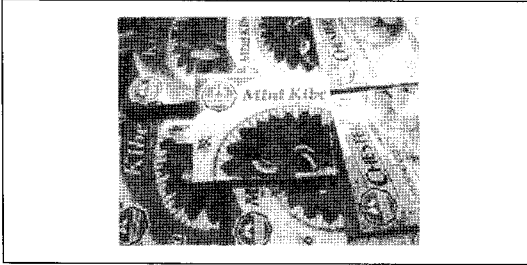
레몬, 체리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며 파렛트 포장은 골판지의 강도저하 방지책 등 좋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조기후로 방충대책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연포장재료 제조는 큰 현지기업이 있어서 그라비어 인쇄, 플렉소 인쇄, 논솔벤트 등이 가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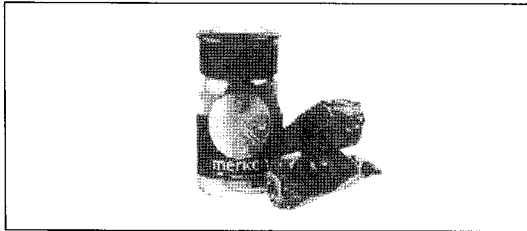
레토르트스프, Tetra Ricart도 시판되어 Long Shelf life화로 이행중이며 최근에는 다이어트 컨트롤 상품이 증가했다. 또 머지않아 증기통기공이 있는 전자렌지 식품도 나올 듯 하다(사진 23, 24).

냉동야채도 일본용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Mac 데이터를 일본에서 송부, 현지 인쇄, 제대 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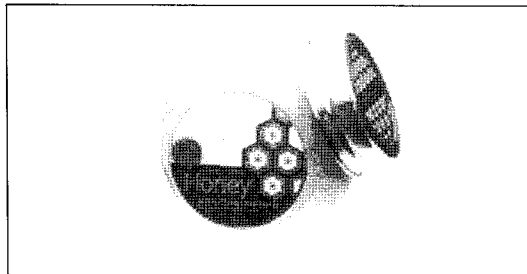
[사진 28] 향토요리 냉동품



[사진 29] 향신료(파우치 : 유리병)



[사진 30] 벌꿀(유리병) 수출을 의식한 디자인



하여 일본으로 출하, 포장재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ONY 필름도 독일제 3층 타입기계로 제조, 남미 및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 출하예정, 일본적인 연포장이 지금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 포장통계에서 플라스틱이 의외로 많은 것도 ONY 공장 설립과 조금은 관계가 있는 듯 하다.

과자류를 중심으로 OPP가 주체로서 증착이나 히트셀 코팅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센터셀링은 유

립풍 스타일이다.

플라스틱용기 성형도 유명한 성형기, 자기부달의 금형 제작으로 청결한 작업환경에서 제조하고 있다.

일본의 IML(Inmold Label)의 칠드 음료컵의 멋짐에 감탄하고 있고 IML과 일본의 마요네즈 다층 블로우 병에 큰 관심을 나타낸다. 남미는 연질 다층블로우 보틀이 없어서 기술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인다.

카톤관계는 약간 소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상당한 옛날의 일본 카톤 형태 잡지 카피를 소중한 듯이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에 남았다.

라벨 관계는 종이는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토탈 구입하고 있으며 옵셋 인쇄기는 (주)고모리 코포레이션 것을 설치, 인쇄 수준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포장재료 가공기, 포장충전 셀링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명한 기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포장재와의 언밸런스가 눈에 거슬린다.

유럽에서 칠레까지 배로 1개월, 일본과는 1개월간이라고 들었지만 수송일수는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

수송일수만 보면 왜 일본의 포장재료가 수출되지 않는지 의아하다.

대만에서 대형 파우치가 칠레로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레진이 공급되고 있는데, 거리적으로 보면 일본과 비슷하다.

칠레식품업계에서 종합구입하여 현지에서는 각사 디자인의 현지 인쇄필름과 수입된 차단성 소재, 이지필 소재를 목적별로 라미네이팅하던 한 회사에서 어려운 포장소재의 구입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6. 슈퍼마켓에서 보는 패키지

남미 5개국의 슈퍼마켓을 충분히 견학했지만, 분위기는 유럽이나 일본의 슈퍼와 별로 다르지 않다.

### 1) 육류는 그대로 또는 포장물

봉지안에서 액즙이 나오는 것도 많아서 포장개선의 여지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싸고(kg 단위의 가격표시) 회전율도 빠르기 때문에 필요없을 지도 모른다.

햄, 소시지 류는 슬라이스 포장이나 창자 충전 등 여러종류이다.

계육은 쉬링크 포장이나 드립, 흡수기능의 트레이 이용도 일부 보이지만 적다.

텔리카코너에서는 구워서 트레이에 넣어 판매되고 있다.

2) 고급화된 고기도 있어서 ○○목장육으로서 가톤입의 코너 점유품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다.

스테이크를 점내 그곳에서 구워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연구도 있어 간편, 시간절약 대응 소재도 나오고 있다.

손님의 기호에 맞춰 고기를 점내에서 숙성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브라질 슈퍼도 있어서 손님의 기호에 대응하라고 하는 의욕이 느껴졌다.

3) 어류는 얼음위에 한 마리씩 놓든가 처리상태여서 점내에서의 스페이스도 적다. 연어 처리육을 팩킹한 것도 있지만 적은 편이다.

포장된 처리육의 냉동품도 있으며 말린대구로 간단한 플라스틱파우치가 있다.

칠레를 제외하고는 어류는 적은 편이다. 어획량은 있지만 식생활 습관에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 4) 유제품

요구르트는 플라스틱 성형용기로 날포장이나 4개팩 등 종류가 많다.

5) 우유는 테트라팩 무균 충전이 많다. 용량은 1l 사이즈가 많고 다종류, Fresh milk를 마시는 습관도 있어서 가격이 싼 PE봉지입도 있다.

점두 패키지를 본 느낌에서는 충전 포장기의 조정,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6) 물은 PET병이 주류이며 그 외에 유리병 등이 있다.

500ml, 1, 1.5(1.6), 3, 5, 6l 로 다종류이다.

종이라벨이 대부분이다. PET병의 리사이클은 아직 충분히 되지 않는 모습이다.

7) 음료, 과즙은 테트라브릭 또는 PET병 등의 플라스틱 용기 충전레벨의 오차가 눈에 거슬린다.

8) 마요네즈는 유리병, PET병입도 있지만 스파우트부착 스탠딩파우치도 많다.

9) 식용유는 해바라기유, 대두유 등 PET병입이 많다.

올리브유는 유리병이 많고 포도나 아보카도 종류의 오일도 있으며 유리병입이다.

캔에 들어있는 오일도 있지만 적은 편이다.

### 10) 냉동식품

다종류로 일상 먹는 향토 요리적인 조리 가공품은 카톤입이다.

고객이 내용물을 확인하지만 상자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다. 점자가 들어있는 카톤도 있어서 기업규모에 의한 패키지의 전략의 격차가 보인다.

11) 야채류는 저울에 달아서 팔든가 1개별 캐리어에 달아 카운터까지 옮긴다. 포장물이 적다.

12) 기호품인 차 종류는 잎 혹은 티백 형식이며 허브를 포함하여 다종류이다.

커피도 싼것은 플라스틱 파우치 입이 있으나 충전 작업이 나쁜지 표면에 커피가루가 부착된 것도 있다.

13) 향신료는 종류가 많으며 플라스틱, 유리병이 많다(사진 29).

14) 잼 등의 포션팩은 리드 박리성이 나빠서 이지 오픈성이 나쁜것이 많다. 리드재는 증착필름 혹은 종이이다. 꿀은 필성도 좋아서 메이커 격차가 있으며 유리병입도 있다(사진 30).

15) 스낵류는 많고 카톤 또는 대형 파우치입이다. 비스켓 소비량도 많고 OPP 포장이 주류이다.

16)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성형물은 외형 디자인, 그래픽에 정교한 것이 많고 슬리브 카톤 이용 등에서 디자인을 잘 마무리 하고 있다.

17) 바이오폴리머도 올해부터 칠레의 하이퍼마켓에서 일회용 봉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7. 글로벌 서플라이를 향해

세계의 최신 포장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카톤이나 크램셀에서는 점자가 들어가는 것을 채용, UD 대응의 핸들링 하기 쉬운 조미료나 폴쉬링크 필름의 플라스틱 용기, 스파우트 부착 스탠딩 파우치의 채용 등이 많다.

1) 패키지의 형상유지, 표면의 오염이나 찌그러짐 방지

2) 확실한 충전 셀링, 적절한 충전법 및 계량법

3) 적절한 포장설계, 재료 선정

등이 중요하며 글로벌 서플라이를 향해서 착실하게 개선될 것이다.

일본의 포장기계는 세계 각 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포장소재, 중간소개의 수출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투명 고차단성 필름, 이지필 필름, 이지컷트 필름 등 일본이 자랑하는 분야의 소재가 후보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포장재 가공기술도 같이 수출하여 현지에서 인쇄한 필름과 라미네이팅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8. 마무리

많은 정보 중에서 일부를 채택하여 설명 부족한 곳도 있었지만 일본의 뛰어난 포장기술을 현지화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원조, 조건이 필요하다.

받은 명함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이기 때문에 단체, 협회 명칭 등이 정확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란다. 또 자료면에서 아르헨티나 포장협회(Aegentina Packaging Institute), JETRO 및 칠레의 패키지 관계자분, 칠레의 CENAM(칠레 포장기술센터) 브라질 포장협회(ABRE)의 여러 분들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